

농촌 유학 활성화로 지역 소멸 대응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유학생 3000명 확대 목표... 교육귀촌 기반 정주형 모델 구축"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역 소멸과 학교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현재 333명 수준인 농촌유학생을 3,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유학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보고, 학교와 마을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 정주를 연계한 '전북형 교육귀촌' 모델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선 교육청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학교별 특성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농촌유학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1년 이상 거주하는 정주형 모델로 확대하고, 기숙형·홈스테이형·가족제류형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 선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의 폭을 넓힌다. 또한 학교부지를 활용한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신속한 시설 확충에 나선다. 지역과 협

력한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학생 대상 유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북농촌유학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 유입 확대를 위해 학부모 학교 선택제를 도입해 학군 제한을 완화하고 타 시도는 물론 도내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천 예비후보는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일자리, 돌봄까지 연계하는 '교육귀촌'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교육을 지자체는 정주 여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육·복지·지역정책이 결합된 통합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농촌유학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산업안전교육도 체험 중심

전북교육청,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서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험중심 산업안전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는 도내 공립 초등학교 산업 안전 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설현장과 기계설비, 전기안전, 응급처치, VR 체험 등 산업재해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5월과 하반기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가 현장의 산업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초등 4학년 구강 진료비 1인당 최대 4만원

전북교육청, 올해도 사업 추진... 도내 222개 치과서 이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초등학생 구강 건강 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춰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구강 진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과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 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며, 학생 1인

당 4만 원 이내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불소도포와 치면세균막 검사, 치아홈 메우기, 치석 제거, 치아 우식 초기 치료(GI·레진), 구강보건 교육 등이다.

올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협약을 맺은 도내 치과 병·의원에 전화 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치과는 도내 222곳으로, 각 학교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국내 수소산업 유럽 인증 대응 역량 강화·글로벌 협력 확대

우석대, 체코 SZU와

연료전지 재활용 세미나

우석대학교가 체코 시험인증기관 SZU와 함께 연료전지 재활용 기술 세미나를 열고 국내 수소산업의 유럽 인증 대응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섰다.

우석대학교는 27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SZU 본사에서 연료전지 스택 재활용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SZU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수소산업 전문가들에게 유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방법과 절차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ZU는 1889년 설립된 체코 정부 산하 시험인증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CE 인증과 교육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체코 산업통상부 수소 전략 특임대표인 페트르 메르바르트가 체코 정부의 수소 생산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양국 간 수소산업 공동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체코수소협회 전무이사 마틴 크레메나르는 '수소사회 발전을 위한



우석대학교는 27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SZU 본사에서 연료전지 스택 재활용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지원 정책'을 주제로 재정 확보 방안과 인증 관련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프라하 화학기술대학의 마틴 파이더 교수는 '연료전지와 수전해의 성능 저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등 총 7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의장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국내 수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 공동 관심 분

야에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교육지원청, 중3~고3

맞춤형 진로진학 아카데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해 중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학년별 맞춤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부 일정은 5월 11일 중3 대상 '고교 생활과 고교학점제 이해'를 시작으로, 12일 고3 대상 '2028학년도 대입 이해와 산과과목 설계', 6월 5일 고2 대상 '2028학년도 대입과 학생부종합전형', 12일 고3 대상 '2027학년도 대입과 수시 면접 전략'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학교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신청이 권장된다.

/오상근 기자

도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월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자녀 심리·진로·경제·시 등 맞춤형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걸)는 28일 '월간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마음을 여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를 주제로 자녀 심리 이해를 돕고, 2단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3단계 '변화하는 시대, 진로설계의 나침반'에서는 진로·진학 정보를 다루며, 4단계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법

을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운영되며, 기수별 약 20명씩 총 4기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5월 15일까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교육ON·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별도의 인공 지능(AI) 특강 수강 기회도 제공된다.

장걸 센터장은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모의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